

■ 주요 뉴스: 전세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본격적인 긴축 전환 우려는 과도한 수준

- 미국 재무장관, 팬데믹 이후 양호한 경기회복이 진행
- 미국 10월 ISM 제조업경기지수, 전월비 하락. 신규수주는 16개월 만에 최저
- OPEC+, 쿠웨이트 등 일부 국가는 미국의 증산 요구를 거절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양호한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지속

주가 상승[+0.2%], 달러화 약세[-0.3%], 금리 상승[+1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기업실적 호조와 에너지 관련주 강세 등이 반영
유로 Stoxx600 지수는 양호한 기업 실적과 은행주 강세 등으로 0.7%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11월 FOMC를 대비한 포지션 조정 등이 배경
유로화 가치는 0.4% 상승, 엔화는 약보합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FOMC에서의 테이퍼링 시행 발표 전망 등이 원인
독일은 ECB의 내년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1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178.7원, +1.2원) 0.1% 상승, 한국 CDS 보합

		11/1일	10/29일	전일대비			11/1일	10/29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613.7	4,605.4	0.18%	국채 금리 10y	미국	1.56%	1.55%	1bp
	유럽	478.87	475.51	0.71%		독일	-0.10%	-0.11%	1bp
	중국	3,544.5	3,547.3	-0.08%	CDS 5y	한국	19bp	19bp	0bp
	일본	29,647	28,893	2.61%		중국	47bp	46bp	1bp
	한국	2,978.9	2,970.7	0.28%	위험 지표	EMBI+	-	381	-
환율	달러지수	93.87	94.12	-0.27%		VIX	16.41	16.26	0.92%
	유로화	1.1606	1.1558	0.42%		WTI유	84.05	83.57	0.57%
	엔화	114.00	113.95	-0.04%	원자재	구리	439.2	436.8	0.54%
	위안화	6.3977	6.4056	0.12%		금	1,793.3	1,783.4	0.56%
	원화	1,176.5	1,168.6	-0.67%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전세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본격적인 긴축 전환 우려는 과도한 수준

- 최근 인플레이션 문제가 부각되면서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 이를 반영하듯 미국 채권시장에서는 단기 국채금리가 상승세. 모건 스탠리도 향후 주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한 방향으로만 전개될 것이라고 평가
- 하지만, 최근 물가상승은 공급 차질과 노동력 부족 등의 여파임을 주의할 필요. 금리인상으로 공급 차질을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 반면 세계화, 첨단기술의 발전, 인구구조 변화 등 장기간 물가상승을 억제했던 요인들도 여전히 유효
- 또한 단기 국채금리 상승은 일부 투자자의 포지션 청산에 기인하며, 장기 국채금리는 전반적으로 안정적. 이러한 상황에서 조기 금리인상은 경기회복을 저해. 연준, ECB, 일본은행 등 주요 중앙은행들도 이를 인식하고 적극적인 긴축에 신중할 것으로 예상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재무장관, 팬데믹 이후 양호한 경기회복이 진행

- 엘런 장관은 최근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통화긴축에 따른 성장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크게 우려하지는 않고 있다고 발언.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견조한 경기회복이 진행 중이고, 경기 과열도 아니라고 진단
- 또한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며, 중국과는 호혜적 관세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양국 간 호혜적 관세인하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
- 부채한도 상향의 경우, 공화당이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단독 처리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 만일의 경우 펠로시 하원의장 및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12/3일까지 해당 사안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첨언

■ 미국 민주당 맨친 상원의원,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에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

-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75조달러 규모의 예산안이 향후 경제와 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 이번 발언으로 시장에서는 백악관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경제정책이 실제 시행되기 위해서 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평가

■ 미국 10월 ISM 제조업경기지수, 전월비 하락. 신규수주는 16개월 만에 최저

- ISM에 따르면, 해당 지수는 60.8로 예상치(60.5)를 상회했지만 전월(61.1) 대비로는 하락. 하위 구성항목 가운데 운송지수가 부진. 이와 같은 운송부문의 부진은 향후 물가상승 압력 확대에 이어질 전망

■ 중국 10월 차이신 제조업 PMI, 50.6으로 4개월래 최고치. 향후 전망은 불확실

- 이번 결과는 신규수주 증가와 전력난 여파의 완화 등에 기인. 한편 같은 달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와 비교하여 차이신 제조업 PMI가 양호했지만, 하위 구성요소 가운데 생산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향후 둔화 가능성이 내재

■ 중국 10월 신규주택가격, 전월비 0.09% 올라 상승률은 2020년 2월 이후 최저

- CIA(China Index Academy)에 따르면, 이번 결과는 금융당국의 신용 축소에 따른 수요 둔화 등에 기인. CIA의 Cao Jingjing는 3/4분기부터 당국의 정책 영향으로 주택시장에서는 관망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

■ 일본 총리, 11월에 추가 부양책을 공개할 계획

- 기시다 총리는 이번 부양책에 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관광촉진책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견해 피력. 기존의 특별 고용안정기금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겠다고 첨언

■ OPEC+, 쿠웨이트 등 일부 국가는 미국의 증산 요구를 거절

- 쿠웨이트는 원유시장의 수급 균형이 적절하기에 점진적 증산이라는 기존의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 이라크, 알제리 등은 이러한 의견에 동조. 사우디 정부도 코로나 19 여파로 수요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피력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11/1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0월 마켓 제조업 PMI(확정치): 58.4, 9월(60.7), 예상치(59.2)
- 미국 9월 건설지출(전월비): -0.5%, 8월(0.1%), 예상치(0.4)
- 독일 9월 소매매출(전년동월비): -0.9%, 8월(0.4%), 예상치(1.8%)

■ 주요 경제 이벤트(11/2 현지시각 기준)

-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호주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인플레이션 지속,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저해 - 블룸버그

(Inflation Unraveling Gives the Fed a Nixon Moment)

- 코로나 19 이후 중앙은행들은 경기회복을 위한 비둘기파적 통화정책을 고수했고, 시장 참여자들은 이를 절대적으로 신뢰. 하지만 최근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며, 중앙은행이 완화적 기조를 강조해도, 금리가 상승하는 등 시장 신뢰가 약화되는 징후가 발생
- Deutsche Bank의 George Saravelos는 닉슨의 브레튼 우즈 체제 해체와 비교하며, 인플레이션으로 시장 신뢰를 상실한 달러화 위기를 상기. 연준의 시장 친화적 정책에 대한 신뢰마저 훼손된다면, 이에 따른 여파는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

■ 이탈리아 국채 매도 증가, ECB의 고위험 채권매입에 대한 불만을 시사 - Financial Times

(Italian bond sell-off signals rising angst over ECB backing of riskier debt)

- 유로존 금융위험의 척도로 인식되는 이탈리아와 독일의 국채 10년물 금리 스프레드가 2020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 이는 ECB의 내년 금리인상 가능성 등이 부각되면서 시장에서는 부채비율이 높은 국가의 국채 매도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
- 특히 내년 긴급자산매입프로그램 종료 발표 등으로 ECB의 역대 고위험 국채에 대한 지원 여부가 불확실. 다만 Union Bancaire Privee의 Mohammed Kazmi는 금리 스프레드가 확대되면, ECB의 지원이 재개될 수 있다고 언급

■ 미국과 중국 관계의 해빙, 세계경제에 긍정적 역할 - WSJ

(One Upside to Economic Woes May Be China-U.S. Thaw)

■ 미국 내구재 수요, 최근의 일시적 감소 이후 증가세 지속될 전망 - 블룸버그

(The Durable Goods Boom Is More Sustainable Than It Looks)

■ 중국恒大그룹 사태, 중소기업 부실 심화 등으로 공급 차질이 증폭될 우려 - 블룸버그

(How an Evergrande Collapse Would Cascade Through China)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28, E-mail jsjeong@kcif.or.kr